



2022년 6월 12일(제1092호) 지역기 기뻐하심 삼위일체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합체가 이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마치 합체하는 로봇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 이런 식으로 너 하나, 혼자로는 부족하니, 전체에 복종하라는 식의 접근은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남인가?’ 하는 태도이지요. 이 ‘우리가 남인가?’라는 구호는 남이 되지 않으려면 알아서 선택하라는 폭력적인 의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의 단점은, 자신의 편을 제외한 전체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딱 요만큼만을 전체라고 지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모두 그 존재 자체를 없애 버리려고 하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일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 회사,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전체에 협력하고, 공동체로써 활동하는 것을 손해를 보는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분열이 참 무섭지요. 특히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 나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들조차도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대축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나, 또 반대로 희생이 없어서 하나 됨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이 전체와 하나를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각각의 격이 무너지거나 다른 하나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 됨의 가장 기본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할 때, 나와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24시간을 마치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경험이 바로 사랑이지요. 지나가다 예쁜 옷을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입은 것을 상상하게 되고, 재미있는 영화 예고편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장면을 좋아했는가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하느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가르고 나눔으로써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미사도, 각각의 상황과 각자의 지향을 담아 기도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것들을 당신 안에 품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도 포함되기를 바라면서 이어지는 미사, 나도 당신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수(프란치스코) 신부
희랑(제11기동사단) 성당 주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지만, 서로가 부족해

제 1 독 시
회답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잠언 8,22-31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로마 5,1-5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영성제송

요한 16,12-15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스무 번째 시한

영국의 세계 지도 한 장을 번역하라고 제게 주었습니다. 컬러로 두 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장은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대신들의 지시로 작은 지리(地理) 개설서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큰 학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 며칠 동안 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곧 아들과 헤어져야 하였습니다. 부디 슬퍼하실 어머니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정신적으로 주교님의 발 아래 엎드려 지극히 사랑하올 저의 아버지이시며 지극히 공경하올 저의 주교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베시(Besi) 주교님과 다블뤼 신부님께 안부 전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포로이며 사제인
안드레아 김

추신 :

8월 29일. 저는 프랑스 배들이 조선에 왔다는 확신을 오늘 얻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쉽게 석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협만 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면 (조선) 포교지에 큰 해를 끼치고 또한 저는 죽기 전에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일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님과 함께 하늘을



작은 종이비행기 만들어
저 파아란 하늘을
님과 함께.

그리 한바탕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님과 함께 하늘에서.

상화이야기

성모님 대관식



엷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청색 겉옷에 붉은 옷을 입으신 성모님이 중앙에, 좌측에 예수님과 우측에 하느님(두 분 모두 붉은빛의 의복)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구름은 아기 천사들이 받치고 있다.)

이 세 인물의 모습은 인간 심장의 모습을 한 형태의 역삼각형 구도로, 성모님이 관을 받으시면서 당신의 가슴, 즉 심장에 손을 대고 계시는 것과 연결된다. 예수님과 하느님, 그리고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함께 성모님께 관을 수여하고 계시는데, 이는 성삼위일체 교리를 나타낸다.

성모님의 겸손한 표정과 그림을 압도하는 피와도 같은 붉은 빛이, 심장 모양의 구도와 연결되어 마치 심장이 박동하는 듯한 효과도 주는 인상적인 작품이다.

벨라즈케즈, 1641년경 제작
캔버스 위 오일, 176 × 124cm /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삼위일체 대축일: 용성대 이상준 신부

◆ 교구장 동정

- 탐라대(해병대9여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12일(주일)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6월 13일(월)~14일(화), 제주 엠마오 연수원

- 국장회의

때·곳: 6월 1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2022년 신임 군중수녀 오리엔테이션

때·곳: 6월 16일(목) 11:00, 군중교구청

- 칠성(제7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18일(토)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